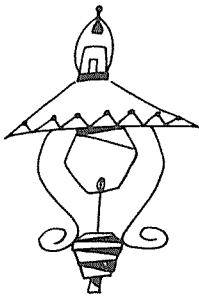


# 특집

□ 低油價時代 □

## 油價戰爭의 부메랑 效果



非 OPEC 산유국들을 상대로 한 사우디 아라비아의 油價전쟁은 중심 표적인 英國으로 부터 아무런 양해도 얻어내지 못한채 스파트 시세의 폭락만 초래하는 결과를 빚었다. 사우디의 이러한 석유정책은 自害행위가 될 소지가 큰 것은 물론 非 OPEC 산유국들을 동조세력의 대열에 끌어들이려던 당초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OPEC (石油輸出國機構) 회원국들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지난해 12월의 OPEC 총회가 세계시장에서 적정수준의 점유율을 회복하는데 최우선을 두기로 결의한 이후 자국 산유량을 1일 440만 배럴의 쿼터 이상으로 증대시켰다. 그 결과 北海産 원유가 79년 이래 최저가를 기록한 것을 필두로 시장 가격이 폭락을 거듭하는 사태를 빚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우디와 OPEC가 非OPEC 유가에 압력을 가할 정도의 低油價 수준으로 생산을 계속 증가시키면 그 결과는 오히려 13개 OPEC 회원국들에게 파멸적인 일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파트 시세를 하락시킴으로써 非OPEC 산유국들의 생산을 억제시킬 수 있는 가격수준과 국제油價構造 자체의 전면적 붕괴까지 유발할 수도 있는 가격수준간의 간격은 종이 한장 차에 불과하다. 美國의 와튼계량 경제연구소(WEFA)는 금년도 석유 수요 예측에서 OPEC 평균 油價가 1/4분기말 배럴당 18달러일 경우 OPEC 원유에는 고작 43만 5천 배럴(1일)의 추가수요가 붙어 OPEC 原油 총수요는 하루 평균 1천 660만 배럴로 올라가는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수요증가분은 전부 합해서 사우디의 증산만으로도 충족될 정도여서 사우디의 증산폭이 이 수준을 크게 초과할 경우 油價불안정은 물론, 또 한차례 油價폭락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는게 WEFA의 전망이다.

### 단기적 완화전망은 불투명

OPEC가 하루평균 1천 660만 배럴의 산유량을 유지한다면 90년대초에 가서 OPEC 原油수요는 상당수준 증대될 것이다. 명목유가가 배럴당 18달러에 묶여 있을 경우 1990년도의 OPEC 原油수요는

85년도보다 하루 230만배럴은 상승할 것이며, 그때 가서 사우디는 油價하락을 유발하지 않고도 하루 600만배럴까지 생산확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WEFA는 내다보고 있다.

단기간내에 별다른 자구책이 강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석유收入상의 손실을 벌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수출증대를 기도한다면 자멸행위가 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우디가 증산하면 다른 수출국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증산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原油가격은 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우디가 산유량을 증대시킬 경우 中東지역의 다른 OPEC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MEED誌가 조사분석한 바로는 ▲사우디의 수출물량을 하루 평균 300만배럴로 가산할 때 原油가격은 평균 25달러가 되고 사우디의 석유수출 소득도 약간 증가하지만, ▲수출량을 350만배럴로 잡으면 油價는 20달러 ▲수출량이 400만배럴이면 油價는 15달러 또는 그 이하로 떨어져 석유수출에서 오는 이득은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우디의 일방적인 대폭 증산은 따라서 다른 OPEC국가들의 경제에도 심각한 마이너스 효과를 줄 수 밖에 없다. 사우디가 올해 수출을 하루 350만배럴로 늘릴 경우 他中東지역 OPEC 국가들은 총 100억달러의 손실을 보게 된다. 사우디의 原油수출량이 400만배럴일 경우 손실은 250억 달러로 급증하게 된다. 이러한 계산으로 미루어볼때 올봄과 여름, 사우디는 油價붕괴를 원치않는 이들 OPEC국가들로부터 강한 감산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는 油價가 배럴당 10달러까지 내려가는데 대한 대비태세까지 갖추고 있다고 사우디의 고위정책수립자들과 밀접한 석유소식통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한 가능성은 사우디의 산유량이 하루 200만배럴 남짓한 수준까지 떨어졌던 지난 해 여름 이후 사우디가 취해온 석유정책상의 변화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우디는 네트백 베이스가격 채택과 대폭적 수출 확대 등 보다 융통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종전의 무조건적 OPEC 공식 가격구조지지 입장을 포기했다.

## 수출을 늘릴 때는 지났다

이제는 시기적으로도 高輸出정책을 쓸 수 있는 때는 쇠진해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계절적 수요는 2월중에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한다. 만약 英國이 2월중에 감산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우디는 결국 油價붕괴를 막기 위해 산유량을 줄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우디가 低油價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OPEC 국가들의 호소에 쉽게 응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우디는 78-80년 중의 油價인상 결정때에도 가장 미온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최근에도 中期전략의 일환으로 타 산유국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原油를 출하하는 네트백 시스템 판매를 결정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이러한 정책시행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데에는 5년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견해도 있다. 사우디 당국안에 정치인들과 실무진 사이에 석유정책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것인데, 왕족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수출을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실무진들은 생산을 억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수출 증대론측이 우세하지만 15달러 미만의 油價로 인한 손실이 명확해질 경우 양측의 우열을 뒤바뀔 수도 있다는 추측이다.

사우디의 OPEC 동료국들은 최근과 같은 동절기 油價공세에 따른 중·단기 결과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회의론자들은 그러한 전략이 非OPEC산유국, 특히 英國이 저유가 압력에 굴복, 결국은 OPEC에 협조하게 될 것이라는 그릇된 판단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전략이 수행됨으로써 나타날 단 하나의 확실한 결과는 평균유가가 85년 수준보다도 훨씬 떨어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한다. 금년도 原油가격은 배럴당 20달러가 가장 유망하다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 〈MEED〉

